

전남 어촌, 참문어 금어기 전쟁

전남에서 참문어(돌문어) 금어기 전쟁(?)이 일고 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어민들이 금어기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동부권의 여수·고흥 문어단지어민협회는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기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5·6월'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반해 서부권 완도지역 어민들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금어기를 7·8월로 옮겨 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거쳐 기존 4개 어종 금어기 대상에 참문어·삼치·감성등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까지 1만 이상이었던 참문어 생산량이 2011년에 6800t 수준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4년에는 5600t, 지난해는 5100t으로 꾸준

해수부 16일~6월 지정...단체장 재량 5월~9월15일 중 46일 선택 가능
여수 등 동부권 "5~6월" vs 서부권 "수은 낮아 7~8월"... 道는 고민 중

히 감소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문어의 자생복원력 향상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5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지정했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 정착성 어종인 참문어의 이동범위가 좁은 생태특성을 고려, 사·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15일 까지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탓에,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금어기를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간으로 고시했고, 제주도는 지역 수은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문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했다.

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권 어민들은 5월과 6월이 참문어 산란기인 만큼 해수부가 지정한 금어기 기간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치어나 알이 뱀 문어가 아닌 어느 정도 자란 문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도 등 전남 서부권 어민들은 동부권보다 수은이 3도 가량 낮기 때문에 7월1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산란기로 보고, 금어기를 지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부권 어민들은 문어가 잡히는 지역은 좀더 깊은 바다로 7월과 8월에 참문어

를 잡게 되면 알을 뱀 문어나 문어 치어 등을 잡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이 지역 어민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전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 동부권과 서부권의 금어기를 달리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역에 구간의 정하기 어렵다는 점, 지역별 금어기를 피해 어획이 풀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남획이 조장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양측 어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1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최종 의견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날 업무시간이 남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참문어를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예술제 경연

11일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호남예술제 국악 부문 경연에서 광주 송원초등학교 신지민 등 8명으로 구성된 가야금 병창팀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송원초 학생들은 최고상을 수상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전남교육청 대장정 돌입

전남교육청이 2021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팀 선정작업을 마치고,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이하 청미프)는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도전하는 전남형 학생중심 교육활동이다.

민선3기 장석웅 도교육감의 역점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산하 전남도학생교육원이 운영을 맡는다.

전남도학생교육원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21년 활동팀 374개 팀을 선발하고, 향후 운영과 지원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선발된 374개 팀(초 70·중 137·고 156·특수 학교 2·학교밖청소년 9)은 오는 2022년 2월까지 사회참여와 진로, 문화예술, 자원봉사, 지역사회탐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스스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는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산 사용 방법, 각종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회계매뉴얼과 활동일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이달 중 멘토교직원과 팀별대표학생, 학교 회계담당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 독서기회를 광주 남구-노들담 형제의 집 7~9월 수요일 프로그램 운영

광주 남구가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서관 및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육시설인 노들담 형제의 집과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응, 진로 설계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에서 남구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립도서관인 문화정보도서관과 아동 양육시설인 노들담 형제의 집과 손잡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시설 아이들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책을 읽고 난 뒤 성취감을 얻거나, 정서 발달 및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주로 책을 통해 유명한 화가와 작품을 만난 뒤 이를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책 줄거리를 파악해 연극 대본 만들기, 시 쓰기 및 낭송법 익히기, 책 속 등장인물의 고민을 파악해 상담하기 등을 학습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정부 지역거점기관 지원사업 선정

AI융복합의료기기 등 혁신형 기기 개발 박차

전남대병원이 최근 광주시와 함께 정부의 지역거점기관지원사업인 '병원중심 AI기반 디지털생체 의료산업 고도화사업'에 선정돼 지역의료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신규 지역거점기관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AI 융복합 최첨단 의료산업 선도할 역량을 갖춘 전남대병원을 이

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생체 의료산업은 기존의 치과·정형외과용 소재부품, 광의료기기, CAD/CAM장비, 콘택트 렌즈 등을 중심으로 한 생체 의료산업에서 최신의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3D 프린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및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의료 신기술 적용 등 최신 트렌트에 부합한 시대 선도적 산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을 대표 질환군으로 선정, 이를 중심으로 의료데이터와 라이프 로그에 기반한 AI를 접목해 디지털 생체 의료기기 제품의 지능화와 다각화를 추구한다.

이번 사업선정에는 광주시의 지역 디지털 생체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고도화 및 다각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됐다.

아울러 생체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지역 강점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코호트 기반 고품질 의료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용이하고, 상용화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전남대병원 주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대 산학협력단도 함께 한다.

전남대병원은 임상의 연계 제품 개발 시스템 구축과 제품 실증 지원 등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광주 테크노파크는 제품 고도화와 기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그리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생체 의료제품 성능 평가 및 안전성평가와 맞춤형 제품 인허가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지역 의료용생체소재부품산업, 광의료기기 기업의 AI기반 헬스케어 의료기기영역 확장이 가능하고, 관련 전문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인력 기업 등 지역 내 집적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